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엡 4:31-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기
 발신부 사회봉사부
 제 목 제110회기 총회 노동주일 지키기 협조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총회는 해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노동주일(제44회 총회 제정)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주일은 진정한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주체인 '사람'을 성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안전한 노동환경과 삶의 균형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각 노회에서는 소속 교회들이 "총회 노동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기 노동주일 예배 자료(안)은 총회 홈페이지(<http://www.pck.or.kr>) 사회봉사부->행정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제110회기 노동주일 예배 자료(안) 끝.

총 회 장
부 장

정 조 중



대리 이민지 실장 홍문배 총무 류성환 사무총장 최상도



시행 도농·사회처-378 (2026.3.13.)

우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6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 (내선9605)

전송 02-747-0043

/ minjee1212@pcknet.org

/ www.pck.or.kr

/ 공개

총회노동주일기념예배

우리 교단은 지난 1959년(제44회 총회), 산업화의 거친 물결 속에서 소외된 공장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주일'을 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7년이 흐른 오늘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이 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매년 4월 마지막 주일을 성서적 노동관에 기초한 '노동주일'로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는 우리 교단이 가진 자랑스러운 영적 유산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예배로 나아감]

인도: 말은이

예배의부름----- 고린도후서 5:20-21 ----- 인도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송----- 반주자

기원----- 인도자

“주님! 이 땅의 일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총회노동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이들을 찾아오셨듯이,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 내 모든 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 다함께

인도자 : 이 땅의 노동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한 노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을 일구신 주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합
니다.

회 중 :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구석구석 주님의 기운이 흐르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통해 이
땅의 노동자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직
한 노동으로 청년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노동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
침마다 새 힘을 주시어 매일 새로운 노동의 노래를 부를 수 있
도록 하시고 밤에는 일찍 잠들게 하시어 몸과 마음의 쉼을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회 중 : 주님, 노동자들이 불의와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존재가
흔들리고 위협받지 않으며 부당하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보호하
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한 존재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인도자 : 한국의 교회는 노동자들과 더불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노동의 거룩함과 아
름다움을 배우고 이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성도들은
노동자들의 따뜻한 벗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형상

(imago Dei)을 보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다함께 : 노동주일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2022년 총회 도농사회처에서 지원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제2회 총회노동주일 공동기도문 공모전 당선작임을 알립니다.
작성자 : 배재우(전 CBS PD)

[말씀예전]

성경봉독----- 각 교회 본문에 맞추어 ----- 인도자

말씀선포 ----- 각 교회 본문에 맞추어 ----- 설교자

[성찬성례전]

집례: 말은이

성찬의찬송 -----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28장) ----- 다함께

제정의말씀 ----- 고린도전서 11:23-29 ----- 집례자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²⁷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²⁸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²⁹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으로 초대 ----- 집례자

“이제 성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동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진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또 우리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합시다. 일터와 삶터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해고노동자, 일을 찾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비정규직으로 언제 일

자리를 잃어버릴지 안절부절못하며 고된 업무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이들,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 집례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성찬을 베푸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찬을 통하여 저희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평화를 얻게 하시고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소외 받는 이들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신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떼 ----- 집례자

잔을 부음 ----- 집례자

참여의 선언----- 집례자

[선언]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성찬은 화해를 통해 이룬 영원의 양식입니다. 다함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떡과 잔을 받음 ----- 집례자와 참여자

*분병·분잔위원 : 맡은이

결단의 기도----- 다함께

인도자 : 서로 다른 삶 속에 아픔과 고난,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으니

회 중 : 일터에서도, 삶터에서도 우리 마음 하나 될 수 있게 주님, 평화 주소서
 인도자 : 오늘은 어제보다 낫길 좀 더 좋은 날 오길, 소망의 뿌리도 모두 같으니
 회 중 : 일터에서도, 삶터에서도 우리 마음 하나 될 수 있게 주님, 평화 주소서
 인도자 : 누굴 원망하기보다 사랑하며 살길, 존재의 연약함도 모두 같으니
 회 중 : 일터에서도, 삶터에서도 우리 마음 하나 될 수 있게 주님, 평화 주소서
 다같이 : 이 땅에 일하며 사는 모든 이가 평등하고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2023년 총회 도농사회처가 지원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제3회 총회노동주일 공모전 당선작임을 알립니다.

작성자 : 김서민(다한품공동체)

찬 송 ----- “생명 진리 은혜 되신”(462장) ----- 다함께

[세상으로 나아감]

총회장목회서신 낭독 ----- 인도자

총회 노동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개 노회와 9,446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산업화의 격랑 속에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우리 교단은 매해 4월 마지막 주일을 성서적 노동관에 기초한 ‘노동주일’로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시대의 아픔에 응답해 온 우리 교단의 소중한 영적 유산이며, 오늘에도 포기할 수 없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시대 앞에서 있습니다. 자본은 기술혁신을 통한 무한 성장을 말하고, 국가는 기술 패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도약의 이면에는 기술적 합리주의에 매몰된 인간 소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이 겪게 될 고용불안과 노동의 가치 하락에 대한 성찰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강화되는 ‘각자도생’의 논리는 복음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사람,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기술은 결코 참된 번영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의 생명을 해하려고 서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6). 이 말씀은 자본과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려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윤보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0:10)를 본받아, 기계보다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세상에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덧 노동을 기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풍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노동’의 신학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노동주일을 맞아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다음의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합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둘째, 안전이 우선되는 일터를 세워 갑시다. 속도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산업 현장이 되도록 교회가 예언자적 감시자이자 따뜻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셋째, 희년의 질서를 일터에 심어 갑시다. 노동과 안식의 거룩한 균형을 회복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려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과, 실직의 아픔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산업현장의 불의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의 신성함이 회복되고, 일터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단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소명 앞에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4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훈목사

위탁의 말씀 ----- 설교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화해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의 지체들의 아픔을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삶을 돌아보며, 형제들의 아픔에 더욱 민감하며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신성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가치가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축도 ----- 설교자

참고자료 1-1.

노동주일 설교문 2025년 수상작

노동주일 설교문 “출근하시는 하나님” / 창세기 28장 10-22절

*이 설교문은 2025년 총회 사회봉사부가 지원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제5회 총회노동주일 공모전 당선작임을 알립니다.
작성자 : 박진영 전도사(장로회신학대학교)

아침 6시 35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건대입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은 피곤하고 무표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어떤 이들은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졸고 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 가득 찬 무언의 기류. 이것이 주일 아침, 제가 교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들 중 누군가는 저처럼 교회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공사현장으로, 또 어떤 이는 회사로, 또 다른 이는 알바 자리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 목적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는 얼굴들. 혼자인 듯, 모여 있는 듯, 목적지를 숨긴 채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들 사이에 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하철에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어떤 모습으로 이 새벽을 함께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디에 계실까요? 이른 새벽, 신문을 읽고 계실까요? 아니면 고개를 떨구며 출근하는 이의 옆에 서서, 기댈 어깨를 내어주시며 함께 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이른 새벽에도 함께 계신 분일까요?

고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낍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고, 현실이 무겁게 짓눌러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의 은혜는 사라진 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의 시작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었고 땅은 딱딱했습니다. 도망자 야곱은 더는 걸을 수 없어 돌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된 하루, 차디찬 밤, 정처 없는 길. 그의 앞날은 안개 속이었고, 마음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꿈을 꾸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서 계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도망자,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한 적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말을 걸고, 그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 야곱은 잠에 깨어나, 그 자리를 뵈옵,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거룩한 자리 안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 고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있을 때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계십니다. 야곱은 그러한 외롭고 고단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까요?

2025년 대한민국.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야곱처럼 길 위에 있습니다. 계약직, 이주노동자, 새벽 배송 기사, 건설 현장의 일용직들. 다양한 이들이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은 여전히 산업재해로 매해 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그들 중 한 명, 정슬기 씨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속도와 효율이 우상이 된 사회 속에서, 인간은 기계처럼 소모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생산성’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치 그 형상이 깨어진 듯,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리는 돌베개와 같고, 그들의 쉼은 잠깐의 눈붙임일 뿐입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노동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출근길은 곧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그 생존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과 함께 출근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모릅니다. 오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 자리, 준비되지 않은 밤, 제의도 예배도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자주, 더 먼저 노동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계신 벤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딘가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위로가 필요한 삶들에도, 고된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출근하십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계시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시하신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그의 곁에, 그의 숨결에, 그의 무게에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두리에, 낮은 자리에, 이름 잊힌 이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 28:15)

이 사닥다리는 단지 하늘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노동이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출근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금은 누구의 권리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하철에 타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도 밤새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인 이의 곁에, 혹은 하루를 준비하며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의 옆에 조용히 서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출근하십니다. 피곤한 어깨 위에, 침묵으로 가득 찬 출근길의 공기 속에, 우리의 일장과 노동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벤엘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쉼을 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언덕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노동의 현장에 내려오셨고, 그들과 함께 오늘도, 출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누군가의 고통을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연대하고, 행동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주일의 신앙이며, 교회의 참된 사명입니다.

참고자료 1-2.

노동주일 설교문 “기독교 노동관” / 데살로니가후서 3장 6-18절

1963년 3월 10일 노동주일에 선포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살후 3.12)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또는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3월 둘째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노동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특별히 근로 대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노동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상고해서 그 교훈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니 첫째로 일(노동)은 인간의 천직(天職)이올시다. 날 때부터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고기와 공중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거기 땅을 정복하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말은 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보통으로 에덴동산에서는 아

무 것도 안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며 지키는 것은 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하라’ ‘일하고 먹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옵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이 일을 맡겼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물론 일이 더 수고롭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더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너는 종신(終身)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우리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일은 우리 인간의 천직이옵시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은 우리 인간의 천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일이 우리 생의 원칙이옵시다. 일은 우리 육체의 발육과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잘 발육될 수 없고 건강이 증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은 심리적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심리가 건전합니다. 심지어 어떤 앓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즉 직업 요법도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여야 사람의 마음이 건전해집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병들기 쉽고,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꼭 정당한 해석일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 같은 이도 요단강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고 메시아를 증거 했습니다. 그 때는 일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세례 요한이 헤롯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래 일하지 아니하고 감금되어 있을 때에 그만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떨어져서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겠다고 하시던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일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은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도 유익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건전한 도덕적 생활을 합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할 것 없으니까 극장에도 하고 화투도 하게 되고 댄스홀에도 가게 되고 말 장이 노릇도 합니다. 너무 분주한 사람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가한 소위 유한 마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일은 도덕적 생활

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카리브 바다의 발베이도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지역 여러 섬에 있는 교역자들이 모여 목사 수양회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발베이도스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그마한 섬인데 아마 한국 이수로 길이가 약 30리, 넓이가 약 20리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다 뵙니다. 이 섬은 참 좋습니다. 언제나 이른 여름 같습니다. 과히 덥지도 아니하고 물론 춥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꽃 피고 정치 아름답고 아주 바닷물이 맑고 참 피서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떤 이가 여기 꽃도 많고 하니까 여기 꿀벌을 갖다 좋으면 많을 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꿀벌 통을 이 섬에다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갖다 놓으니까 처음에 몇 달은 이 꿀벌들이 꿀을 잘 만들어 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꿀을 만들어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저 사방에 꽃이요 언제나 벌들이 청밀(淸蜜)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꿀을 갖다 모아 놓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꿀벌들이 할 것이 없어서 그저 꽃에서 꿀을 먹고는 악착스럽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대로 쏘아주어서 큰 변이 났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없는 사람은 이런 꿀벌 비슷해서 공연히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만 해칩니다. 일은 도덕적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일하는 가운데 만족을 얻고 천재가 다시 되고 내재의 능력이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향상이 있고 발전이 있고 새 문화가 창조됩니다.

오늘날 우주를 탐색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밤과 낮을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지 압니까? 일은 인간의 천직이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하고 살고 일하고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상고해 보니 “모든 일은 신성하니라.” 즉 꼭 같이 어떤 경우의 일이든지 필요한 일은 다 신성하니 존중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은 대체(大體)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노동, 하나는 육체적 노동.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류를 꼭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정신적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육체가 또 노력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육체적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해야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능률이 납니다. 그러나 보통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떤 시대에서든지 정신적 노동은 존경했지마는 육체적 노동은 천시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양 문명 사회에서도 그 사회 내용을 볼 때에 일은 천시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지혜가 많다고 하는

플라톤(Pluton)같은 유명한 철학자, 로마의 유명한 학자 시세로(Cicero)같은 사람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노동도 정신 노동과 꼭 같이 신성하고 귀하다는 사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다른 사회, 다른 철학자의 문헌, 다른 어떤 사상가의 문헌 가운데서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예수는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육체 노동인 목수 일을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 복음 12장에 보니 예수께서 온 권세를 다 자기에게 맡기신 줄로 스스로 의식하면서도 실지 한 일은 옷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노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 대부분이 어부요, 농부였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로 교훈 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특별히 육체 노동을 하라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다가 여러 가지로 권면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자기 손)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들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4-35). 내 손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모든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너희들도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약에만 이와 같은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역시 이와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잠언 32장에 보면 그 때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으로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장 어진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를 기록할 때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가장 현숙한 여인들은 집안에서 길쌈을 하고 실지로 일하는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중고시대의 수도원 제도를 보면 수도사들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옷감을 짜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작자급 했습니다. 기도하며 노동했습니다. 사실

모든 노동은 꼭 신성하다 하는 그 사상은 기독교의 유산이올시다.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Martine Luther)는 “다른 정직한 일은 성역(聖役)과 같이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혹은 거리를 쓰는 일, 모든 필요한 정직한 일은 성역과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꼭 같이 거룩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상이올시다.

셋째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의의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근로 대중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의의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은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받을 권리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짐승도 일하는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거늘 하물며 일하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의의 대우를 요구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품꾼의 삯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불할 대로 마땅히 지불하라고 권면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엔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품삯을 정당하게 주되 줄 그 때에 꼭 주라고, 연기하지 말라고, 끌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겠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모든 일 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을 말이올시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4절에 그 당시 옳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경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회의 불의한 이 모든 일이 불의한 사회제도 아래에서 불의한 대우를 받는 이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하는 음성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는 뜻이올시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 대중의 권리는 확실히 인정하고 정의의 대우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줄 만큼 주어야 하고 줄

때에 주라고. 만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자본주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좀 더 일찍이 깨닫고 실행하였던들, 근로 대중에게 사회주의를 실현하며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던들 오늘과 같이 노동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이용하는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근로 대중의 권리에 대한 보장, 사회정의의 실현은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사(同事)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 일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3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종들아(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앞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말씀인데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로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 맡은 일을 하라. 무슨 일이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하고, 진실히 하라고.

둘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말들 든 지, 집안에서 뜰을 쓸든 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자와 꼭 같이 하라고.

셋째로는 상을 주께 받으리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니라. 네 맡은 일에 이와 같이 잘하는 것은 단순히 네 생활만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주인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은 네 맡은 일을 옳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바로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거기서 꼴 옳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배당을 짓는 공사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중 한 석수(石手)를 붙잡고 “당신은 뭘 합니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석수가 얼른 “나는 그저 하루에 백원 벌이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

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석수에게 “당신은 뭘 합니까?” 하니, “나는 돌을 깎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석수에게 “당신은 뭘 합니까?” 이 사람은 “나는 만류 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꼭 같이 돌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 정신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꼭 같이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사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독교 노동관이올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일을 이렇게 봅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한다는 이 신념, 이 사상이 곧 우리 믿는 사람이 노동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는 그 일이 참 기도요, 그 일이 참 예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Millet, Jean Francois) 의 유명한 그림 가운데 「만종」(晚鐘)이라는 그림을 다 아시지요. 어떤 젊은 부부가 밭에 나가 종일 일을 하다가 황혼이 될 때에 멀리 예배당에서 저녁 종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부부가 일하던 기구를 다 모아놓고 꼭 같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림이올시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각자 내 생활을 위한 직업이 물론 있습니다. 이 모든 직업을 이제 말한 이 정신에 의지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공통으로 내 직업 이외에 그보다 더 큰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나의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일보다 첫째 되는 일이요 더욱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노동 주일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로 대중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에게 그 일하는 직장에 가서 하나 하나 만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일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밤이 오게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환난

의 밤이 오고, 질병의 밤이 오고, 노약(老弱)의 밤이 오고, 다시 말하면 죽음의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오게 되면 아무리 일하려고 애를 써도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실업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쪽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드뭅니다. 이 황폐한 강산, 죄악으로 가득 찬 온 한국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참고자료 1-3.

노동주일 설교문 “안식하라, 노동을 위하여” / 출애굽기 20장 8-10절, 신명기 5장 12-15절

이 설교문은
2024년 제4회 노동주일 공모전 설교부문 수상작인
김동희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견뎌내야 할 저주라 생각하셨습니까? 일이 참 고되고 힘들기에, 때로는 감정적인 수치와 모멸감을 견뎌야 했기에, 때로는 어렵고 위험한 순간들을 보내야 했기에, 우리는 때때로 이 노동이라는 것이 복이라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더욱 기름을 붓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꼬득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겐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을 죄의 댓가로 치뤄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겐 수고하여 땅을 경작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땅을 곡식의 씨앗을 뿌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빠르게 자라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노동이 그저 죄의 댓가이며, 죽을때까지 생존을 위해 견뎌내야만 하는 저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노동을 천대해오던 문화가 있어서, 더욱 노동하는 것을 스스로 멸시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창세기 말씀을 유의해서 본다면, 노동을 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을 하는데도, 그 노동에 합당한 댓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 생명을 키우려 애쓰는데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은 노동의 가치, 노동의 열매가 상실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밭에서 먹을 양식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데, 양식이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왜곡하고 파괴하고 그 노동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삶에서부터 돌이켜, 참된 노동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회복시키시는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이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고된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그 백성이 지켜야 할 열가지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가지 계명의 네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노동에 관한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안식일에 관한 계명으로 생각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분명히 노동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두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번 나오는데요, 각각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이 5장 말씀입니다. 그 중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2,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신명기 5장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말씀은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동시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제외한 날에 힘써 일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때, 힘써 일하는 일, 곧 노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왜곡된 노동, 곧 열매를 얻지 못하는 노동,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노동에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설명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함께 살펴볼 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온 세상을 6일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휴식을 본으로 보여주시며, 사람에게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이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날카로운 하나님의 비판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면서 이집트에 열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은 이집트 제국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 섬겼던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모든 풍요로움을 지탱하던 나일강과 비옥한 토지, 뜨거운 태양과 힘센 가축들, 그리고 풍성한 자녀들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 더 정확히는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무한히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피조물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 피조물들을 섬기기 위하여 쉬지않고 무한히 일하는 상태, 모든 노동의 리듬을 피조물들의 생산에 맞추고, 모든 노동의 과정을 효율성에 맞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키우려고 일을 하지만,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집트 체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며, 너희의 노동이 피조물들에게 예측되지 않도록, 너희의 노동이 욕망과 탐욕에 예측되지 않도록 매주 안식하며 그것을 되살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노동의 리듬을 맞추는 것, 노동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의미는 다름 아닌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의미입니다. 이상숭배와 죄악의 문화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저 풍요로움을 위해, 제국의 번영을 위해, 사람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문화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노동이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고 열매를 가로막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 하시며, 그 안식을 통해 노동을 늘 거룩하게 하라, 곧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 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인 것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 같은지를 함께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노동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자 노동을 하는 데, 이 땅에선 날마다 노동을 하다가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우리는 그것에 무감하고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리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과 편리한 소비의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밤새 상하차 작업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르다가 무리해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이 시스템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효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파견과 도급과 용역과 하청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도 내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겐 수많은 영경귀와 가시나무가 있고, 이로 인해 열매를 얻기는 커녕 생명을 잃는 노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문자 그대로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노동문화, 쉼을 효율에 종속시키는 노동문화를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쉼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피워내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되새겨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안식은 해방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탐욕을 우상숭배를 하던 이집트는 끊임없는 노예들의 노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 노동을 하면서도, 노예들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풍요와 탐욕의 우상숭배가 바로 영경귀와 가시덤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노동 회복의 전제 조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되돌아보아야 하며, 무엇을 우리가 가장 숭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효율과 편리함과 쾌락과 성장만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시덤불과 영경귀를 없앨 수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안식이 곧 저항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노동에 적용해야 합니다. 안식은 체제의 리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쉼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드러내어, 나아가 노동을 존엄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쉼은 우리의 피조물됨과 한계를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무한한 효율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비인격화된 노동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영경귀와 가시덤불에 저항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쉼을 통해 노동의 조건을 만드는 일은 오늘날의 파업과 매우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가 살아있는 인격체임을 드러냅니다. 안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노동과 노동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저항적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노동이었

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람 살리는 노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노동이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이 값진 일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노동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체제에 저항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의 노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창조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2.

노동주일 포토에세이

*이 포토에세이는 2024년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지원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제4회 총회노동주일 공모전 당선작임을 알립니다.
작성자 : 김윤동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일당직은 다치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간다.
아파서 그런게 아니다.
다치면 내 자리는 대체되고, 내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치면 내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3.

노동주일 나의 노동일지 에세이

노동일지 에세이 “노동과 기도의 시간” / 나는 16년차 호두과자점 사장입니다.

*이 노동일지 에세이는 2025년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지원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제5회 총회노동주일 공모전 당선작임을 알립니다.
작성자 : 한지연 집사(성문밖교회)

매일 아침 8시, 나는 매장에 나와 호두과자 기계에 불을 붙이고 반죽을 붓고 예열을 시작합니다. 예열이 끝나면 호두과자가 하나씩 구워져 나오는데 그때부터 나의 손놀림은 포장과 판매로 더욱 바빠집니다. 손님들은 내 포장 속도에 놀라며 “달인”이라고 감탄하는데, 같은 일을 16년째 하다 보면 손이 기계보다 더 빨라집니다.

16년 전 경제적 가장이 된 나는 생계를 위해 창업을 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호두과자 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10명이 창업하면 1~2명이 살아남는다는 열악한 자영업의 현실을 들으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 무섭다는 창업시장에 뛰어 들게 된 것입니다. 퇴직한 시아버지는 호두과자 굽는 일을 맡아주셨고, 바쁠 때는 온가족이 총동원되어 일을 합니다. 재료를 섞어 반죽하고, 구워내고, 포장하고, 때로는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 기계가 사용되기 때문에 큰 기계들을 매일 청소하고 만지는 일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창업 후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부담은 무거웠고, 경험의 무지로 생긴 초짜의 실수들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새 16년 되었습니다. 매일 매장 문을 열면 같은 일과가 반복됩니다. 일이 익숙해지면서 나는 포장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들숨에 “주 예수여” 날숨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규칙적인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호흡을 고르며 기도합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호흡에 문제를 느끼는 공황 증상을 겪었는데,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느 순간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노동과 기도’의 유익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호두과자를 한입 물고 나가는 손님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 너무나 기쁘다고 합니다. 맛있는 먹을거리가 주는 위로와 기쁨이 크고 그것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호두과자가 우리 집에 밥이 되고 옷이 되고 아들의 책이 되니 보람되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휴게소에서만 먹던 호두과자를 동네에서 사 먹을 수 있어 좋다” 고들 하셨고, 지금은 “여기 호두과자를 먹다 보니 유명하다는 온갖 호두과자가 맛없어 못 먹는다”는 말도 듣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시간으로 쌓아온 손맛이 결국 우리 매장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그것도 지하철역 앞 A급 자리에서 한가지 품목만 팔면서 오래 버틴다는 것은 계속 현실적인 고민이 따릅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호두과자를 가벼운 간식으로 떠올리지만, 사실 매출을 높이는 것은 선물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답례품에 착안해서 매장 한쪽에 답례품 코너를 꾸며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답례품들이 드문드문 나가다가 2년쯤 뒤에 온라인에 올린 소개 글들이 알려지면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결혼답례품을 많이 하던 시기라 신혼부부들이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예약 받은 답례품들을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보내다 보니 좋은 반응이 또 다른 단체주문으로 연결되면서 창업 때 진 빛과 기존에 있던 가게 빛까지 사랑의 빛만 남기고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설 틈 없이 바쁘고 고단했지만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몇 년간은 정말로 온 우주가 나를 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빠르게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쏟아지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집니다. 우리 매장도 변화에 적응하려고 3년 전부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출의 10% 정도가 배달 플랫폼을 통한 판매입니다. 수수료가 큰 것이 부담되어 늦게 시작했고, 지금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프로모션이 끝나면서 수수료가 올라갔고, 또 이름이 '알뜰배달'로 바뀌면서 계산 구조도 바뀐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몇 주를 넘기다가, 입금된 금액을 보니 재료비 빼고 남는 수익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입금 금액이 섞여 들어오고 일에 바쁘다 보니 몰랐던 것입니다. 플랫폼업체는 계속 문자로 공지를 한다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매장 일에 쫓겨 세세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배달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내는 가게들은 이 복잡한 계산을 잘 하고 있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내 눈으로 배달의 민족이 망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전분투하다가 폐업한 자영업자의 분노가 왜 플랫폼으로 향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로페이처럼 플랫폼도 공공사업으로 설계되면 어떨까, 제로페이가 지금과 같이 인식되고 사용하기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혜택을 알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가맹점을 방문해서 도와주고 참여시켰던 사례를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플랫폼은 더 복잡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뿐 아니라 라이더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공공사업으로 누군가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일하면 그 분야에서 숙련이 된다고 합니다. 베테랑이라고 하죠. 16년 차에 접어든 저는 이제 뒤돌아서서 기계 소리만 듣고도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정도가 됩니다. 바쁘면 바쁘게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그 나름의 좋은 점을 즐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매장이 오래되면서 손님들과도 이야기가 쌓이고 정이 생깁니다. 내게 익숙한

공간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경제적 활동을 이어가는 지금이 참 감사합니다. 이 노동의 기쁨을 오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참고자료 4.

노동주일 성도의 다짐(열 가지 약속)

*성도의 열 가지 약속은 2021년 총회 도농사회처에서 지원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제1회 총회노동주일 공모전
당선작임을 알립니다.

작성자: 송다윗(성문밖교회 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

1.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며 노동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인 노동자를 우리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2. 우리의 노동을 세상의 창조와 구속에 참여하는 방편으로 삼겠습니다.
3.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 그들 심신의 건강을 돌아보겠습니다.
4. 스스로도 안식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안식할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5. 우리 공동체 속 보이지 않는 돌봄의 노동을 인식하고, 그 짐을 나누어 들겠습니다.
6.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대가 없는 노동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7. 자녀들은 양육을 위해 노동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노동을 하게 될 자녀들을 주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우리 또는 우리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9. 우리가 '소비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노동자'였던 때를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10. 수익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땅에 보물을 쌓는 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이가 되겠습니다.